

파주장단콩축제 성료... 14억5000만원 판매고 올려

수입창출·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

파주시는 지난 26~28일 3일간 임진각 광장 일원에서 열린 ‘제25회 파주장단콩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후 지난 2년간 지역 축제가 대부분 취소됐는데, 이번에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지침에 맞춰 축제를 열었다.

가을과 같은 따뜻한 날씨 속에 수많은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았고, 파주농업인들이 생산한 장단콩과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는 만남의 장이 됐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지침에 따라 부녀회 음식집, 두부 등 대표 먹거리와 공연, 체험부스는 운영되지 않았지만 많은 인파가 축제장을 찾아 다양한 우수 파주 농산물을 구매했다.

또 장단콩축제만의 하나의 볼거리인 농업인이 직접 재배한 1차 농산물을 판매하는 재래장터는 방문객들의 많은 관심 속에 조기 완판돼 그 인기를 증명했다.

파주장단콩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소중



‘제25회 파주장단콩축제’ 개막식에서 참가자들이 축하 테이프를 절단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장단콩동산 포토존을 운영했으며, 방문객 편의를 위해 행사장과 주차장을 왕복하는 무료배달과 단돈 천원에 집까지 배달해 주는 ‘천원택배’ 서비스도 운영했다.

파주시는 이번 제25회 파주장단콩축제를 통해 파주장단콩 74t, 9억8000만 원과 기타

농산물 4억7000만 원 등 모두 14억5000만 원의 농산물을 판매해 파주농업인들의 수입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입장하고 입장 전 발열체크, 안신크, 손소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로 드라이브

스루로 개최된 지난 축제와 달리 이번 대면 축제를 통해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해 성황리에 축제가 치러져 많은 농업인에게 도움이 됐다”며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돼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이 함께하는 파주장단콩축제로 찾아뵙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연식 기자

파주시, ‘마을공동체 새싹학교’ 수료생 16명 배출

공동체 구성·공모사업 신청 등 공헌

파주시는 사회적경제희망센터에서 ‘마을공동체 새싹학교’를 운영해 1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마을공동체 새싹학교는 마을공동체에 관심 있는 주민과 신규 공동체를 위한 교육으로 공동체를 구성하거나 공모사업 신청을 준비하는 공동체에 큰 도움을 줬다.

교육은 총 6번 진행됐으며 신규 활동 시 꼭 알아야 할 공동체의 개념은 물론 선배 마을공동체 활동 사례 공유와 내년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이 진행됐다.

김은희 시 도시재생과장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신규 공동체의 활동을 응원한다”면서 “공동체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해



파주시 마을공동체 새싹학교에서 수강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파주시 제공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2년 파주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신규 공동체와 기존 공동체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모지침을 마련해 내년 1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최연식 기자



광주시 방류수 재이용 협약에 맺은 방류수 재이용 업체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을 기탁했다.

광주시 제공

방류수 재이용 업체, 광주시에 성금 기부

협약 맺은 7개 업체, 1520만원 전달

광주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하는 방류수를 재이용하는 업체들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을 기탁,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지난 26일 광주도시관리공사와 방류수 재이용 협약을 맺은 ▲모현석산업 300만 원 ▲유진기업 300만 원 ▲한주명개발 300만 원 ▲

포스코건설 200만 원 ▲이에스아이㈜ 200만 원 ▲㈜이화광재 120만 원 ▲새틀콘설계 100만 원 등 7개 업체가 모두 1520만 원의 성금을 광주시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기탁자들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함으로 느껴지길 바란다”고 기탁소감을 밝혔다.

김지백 기자

광주시 초월초, ‘사랑의 김장김치’ 기탁

교사·학생들이 직접 담근 50kg 전달

“고사리 손으로 직접 담근 김장김치 그정성이 코로나와 한겨울 한파도 걱정없어요.”

광주지역 내 초월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은 지난 26일 초월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김장김치(50kg)를 기탁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이날 전달한 김장김치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재료로 직접 만든 것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유재운 초월초 교장은 “학생들이 고사리

손으로 정성껏 담근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돼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김치를 직접 담근 학생과 교직원들도 작은 정성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낀다”고 기탁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구정서 초월읍장은 “코로나19로 김장 나눔 행사가 줄어들어 소외계층에게는 더욱 힘든 시기인데 이렇게 김장김치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김지백 기자



광주시 초월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이 직접 손으로 담근 김장김치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초월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구정서 읍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자원봉사자가 어르신 예진표 작성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제공

성남자원봉사센터, 예방접종지원 우수센터 선정

성남시자원봉사센터가 최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한 ‘예방접종지원 자원봉사활동 우수센터’에 선정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상을 수상하게 됐다.

기초단체 우수사례를 제출해 1차 시도센터심사를 거쳐 2차 중앙센터 심사후 최종 40곳이 선정됐다.

성남시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백신예방접종을 시행하게 되면서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백신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해 왔고 약 7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했다.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이동지원, 거동불편한자 승하차 지원은 물론 동선 및 주차 안내, 예진표 작성 등에 힘을 보탰다.

김대성 기자

남양주시복지재단-네이버 해피빈, 전기압력밥솥 지원

남양주시복지재단 남부희망케어센터는 지난 25일부터 전기밥솥이 없거나 고장나고 노후된 전기압력밥솥으로 인해 식사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양주시 남부권역 40가구에 전기압력밥솥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온라인 펀딩 플랫폼인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고장난 밥솥, 냄비밥은 태우기 일싸라’는 주제로 지난달 15일부터 5주간 모금활동을 펼쳤으며, 모금에 총 2802명이 참여해

조성된 후원금 500만 300원으로 전기압력밥솥을 마련할 수 있었다.

남부희망케어센터 김기수 센터장은 “이번 해피빈 온라인 모금사업에 2800여 분이나 참여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약식동원(藥食同原)이라는 말처럼 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으니 밥솥을 지원받은 우리 이웃들이 질 높은 식사를 통해 건강 상태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화우 기자

구리소방서, 전국 화재조사 학술대회 최우수상

구리소방서는 지난 25일 전국 화재조사 학술대회에서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 대표로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화재조사전문능력 향상과 학술교류를 위해 소방청 주관으로 25일 대구EXCO에서 진행됐다.

1차 논문 심사에서 전국 19개 소방본부 중 상위 9개 팀으로 선정돼 본선 출전 자격을 얻은 구리소방서(소방위 최재원, 공동연구자 소방청 강경석)는 이날 대회에서 ‘압력셀을 활용한 리튬이온 배터리 니켈 리치 양극재의 화재 위험성 분석’이라는 주제로 열띤 경쟁을 펼쳐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박철수 구리소방서장은 “화재조사 현장 업무를 하는 힘든 시간에도 우수한 논문을 연구하고 준비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화재조사 연구역량을 강화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우 기자



구리소방서는 지난 25일 전국 화재조사 학술대회에서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 대표로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구리소방서 제공